

북한이탈 주민 대상 영어교육 연구동향*

김태영 · 오신유 · 신희창**

Kim, Tae-Young, Oh, Shinyu, & Shin, Hee-Chang. (2023). Research trends of Englis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English Teaching*, 78(2), 193-222.

This paper systematically analyzed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defectors'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using the scoping literature review method. From 2001 to 2022, research on this topic was categorized into three phases: 1) Phase 1 (2000-2011), 2) Phase 2 (2012-2019), and 3) Phase 3 (2020-Present). Each phase was analyzed using school levels, themes, and research methods. Approximately a quarter of previous research investigated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ith students having difficulties with their limited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Research themes mainly concentrated on learner factors (48 papers), followed by educational contexts and teaching methods (21 papers). Most studies on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dopted qualitative methods focusing on a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Regarding research methods, studies adopting qualitative methods accounted for 48.0%, whereas studies using quantitative ones accounted for 10.4%, reflecting the limited research opportunities to collect a large set of data from various North Korean participants in Sou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English educ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 educational support/북한이탈주민,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영어교육, 교육적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A2A01061744).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Tae-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06974; Email: tykim@cau.ac.kr

Second Author: Shinyu Oh,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rd Author: Hee-Chang Shi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Received 31 March 2023; Reviewed 17 April 2023; Accepted 30 May 2023



1. 서론

‘먼저 온 미래’, 또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북한이탈 주민은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Na, 2019).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3만 명이 넘었으며, 2022년 기준 누적 북한이탈 주민 수는 3만 3천 8백여 명에 이른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2a). 우리나라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초기정착금, 거주지 보호 및 지원제도, 교육 및 취업 지원제도 및 다양한 사회보장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Yang, 2022). 그러나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 주민들의 정착 과정에는 여전히 생계 곤란, 직장 부적응, 문화 간 갈등,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완전히 동화되는 것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Choi, 2018; E. Kim, 2021).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장기적인 정착 및 자활에 대한 관심은 경제, 사회, 문화 영역뿐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Cho & Kim, 2021).

북한이탈 주민 대상 정착지원은 ‘보호’에서 ‘자립 및 자활’과 ‘사회통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Na, 2019), 특히 자립과 자활 및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권 보장은 이들이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Kang, 2018).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다수의 교육관련 실태연구 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교육 정책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 사회, 문화, 언어적 배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Jun & Yoo, 2019; Kang, 2010; Park & Kim, 2014; Yu, Bae, Jo, Kim, & Choi, 2013). 또한, 북한이탈 주민과의 면담 연구를 통해 이들의 과거 혹은 현재의 낮은 교육 수준과 학업 부진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며, 실업을 심화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Kim, 2018).

특히 북한이탈 학습자들은 영어 과목에 대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예: Kang, Han, Kim, Lee, & Kim, 2014; Korea Hana Foundation, 2021),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 현장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필수적인 영어 교육지원 유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 교육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영어교육 분야 내 1차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는 종합연구 방법이 적절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장기적인 자립과 자활 및 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북한이탈 학생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 20여 년간의 영어교육 연구들을 연구논문의 발행시기와 분석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분류

¹ 1997년 북한이탈 주민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 고등학교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등의 교육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Kang, 2018; Kwon, 2018).

하는 종합 연구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 추세와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과 영어교육

Ministry of Unification(2022a)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국내 북한이탈 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인원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공존과 협력의 한반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Korea Hana Foundation, 2021, p. 12).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정착금, 주거 및 취업관련 복지 및 교육지원과 같은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다(Cho & Kim, 2021; Kwon, 2018).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 이후 북한이탈 주민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은 곧 경제적 자립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증명되는데, 활발한 경제 활동이 기대되는 20-30대가 북한이탈 주민의 전체 57.3%를 차지하며(Korea Hana Foundation, 2021),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학력중심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정착 및 생존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Oh & Lee, 202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제 학력에 따른 남한생활에서의 만족도 응답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한에서의 생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Korea Hana Foundation, 2021).

이러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생활 만족도와 학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을 보고하고 있다(Jung & Kim, 2015; Park & Kim, 2014; Yu, 2020). 대학의 경우, 북한이탈 학생의 4년제 대학 중도 탈락률은 28.4%이며, 휴학을 또한 43.6%로 대한민국 출신 학생 대비(4.1%)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Cheong & Cho, 2017). 이들은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제도 및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학 적응이 쉽지 않으며, 그 결과 학점 평균이 낮아져 통일부가 규정한 성적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학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도 학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Cheong & Cho, 2017; Kim, 2018; Yu, 2020).

특히 영어 교과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 실태를 탐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의 영어학습 부진을 언급하였으며(Jung & Kim, 2015; Park & Kim, 2014),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능력 및 영어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Hwang & Jeon, 2020). 북한이탈자 출신 대학 학습자들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필수 영어과목 수강과 공인영어점수 관련 졸업자격요건 충족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Cheong & Cho, 2017; A. R. Lee, 2017; Park, 2020), 이러한

영어 과목에 대한 어려움은 대학교뿐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재학 과정에서도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Jang, 2019; Jang & Kim, 2021; Jo, 2019; Lee, 2015; Park, 2020; Pyo & Kim, 2017; Yang & Lee, 2012).

실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단연구에 따르면, 국어(9.5%)와 수학(10.1%)에 비해 영어(12.6%)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어를 교과목 중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Kang et al., 2014; Korea Hana Foundation, 2021; Park, 2020; Shin et al., 2012). Jung과 Kim(2015)에 따르면,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영어 학습을 포기하거나 학습 부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영어교육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영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 부진은 결국 고등교육의 기회 및 진로 결정에 큰 제약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탈 과정 중 발생한 교육 공백으로 인해 한국학생과의 학습 격차뿐 아니라 남북한의 극명한 영어교육 수준 차이로 나타났다(Hwang & Jeon, 2020; Kwon, 2017; Yang & Lee, 2012).

2.2. 북한 영어교육의 시대별 변천

Kim(1995)과 Jung(2018)에 따르면, 남한의 영어교육은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북한의 영어교육은 사회주의 정치사상, 특히 주체 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정권 수립 이후 3대 세습 체제가 공고화되었으며, 세 시기에 따라 영어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변화가 발견된다(Cho, Lee, Kang, & Jung, 2015). 먼저, 김일성 통치기간(1948년 9월 9일부터 1994년 7월 8일까지)에는 주체사상²을 정립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영어 교과서에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지문을 사용하였고 전쟁을 대비한 최소한의 군사용어(예: “Hands up”, “Surrender, or you will be shot to death”)관련 영어단어와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T.-Y. Kim, 2021). 김정일 통치기간(1994년 7월 9일부터 2011년 12월 17일까지)에는 선군사상³을 중심으로 폐쇄성이 심화되었으나, 제한적인 국제교류 역시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0년 12월에 영국과 정식수교를 맺고 영국문화원을 통해 원어

² 주체사상이란 김일성의 공산혁명사상으로 북한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통치이념이다(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6).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년(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데, 2022년은 주체 111년이 된다.

³ 선군사상이란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되는 북한의 대기근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22).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며 식량난이 가중되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무장 개념으로 민간보다는 군대를 우선시하여 고난을 극복하자는 국가적 캠페인이 지속되었다. 심화되는 식량난으로 기존의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각 가정은 각자도생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암묵적으로 용인된 장마당에서 정보와 물건을 교환하였다. 특히 대기근으로 인한 대량 탈북민이 중국 등 국경으로 유입되었으며 탈북 청소년, 아동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다(T.-Y. Kim, 2021).

민교사를 지원받았으며, 영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예: 영어교사 양성, 영어 교육 자료 개발, 영어교육과정 개편 등)을 운영하였다(T.-Y. Kim, 2021). 이후 영국문화원은 2014년 7월에 본 프로그램을 연장하였지만 2017년 9월 6일 이후 핵심학과 탄도미사일 등 정치안보 차원에서 ‘북한 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북한에서의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다(H. Kim, 2017).

마지막으로, 김정은 통치기간(2011년 12월 18일부터 현재)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하였다(Hong & Kim, 2019). 김정은은 교육개혁을 시도하였는데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2016)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2012년 9월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채택하였고, 2013년 ‘제 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발표하였다. 본 강령은 북한의 의무교육 연한을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영어교과에도 의사소통능력과 영어권 문화를 확대 및 수용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Lee, 2020; Lee & Kim, 2022). 이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연간 약 4천 명에서 6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있었기에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학입시 및 외화 획득을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가 북한의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T.-Y. Kim, 2021).

김정은의 학제 개편에 따른 변화는 영어교과서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며 원어민과의 접촉을 통한 진정성 있는 영어 의사소통 기회가 제한되는 EFL 환경에서는 수업시간이 곧 영어학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의 역할은 중요하다(Joo & Uhm, 2020).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영어 교과서 역시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J.-R. Kim, 2021). 예를 들어, 영어교과서에 직접적으로 조선혁명이 언급되며, 김정일의 연설문을 지문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은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을 공고히 하며, 통치권자의 우상화 및 북한사회의 애국심을 강화하고자 하였다(Park, Kim, Ko, Park, & Chung, 2000). 그러나 김정은 집권기 이후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도 비교적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Oh & Kim, 2020; Yoo & Kim, 2018).

3.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종합 연구로 2000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작성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영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하는 것을 목

⁴ 김일성-김정일주의란 김정은이 집권하며 내세운 지도사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K.-S. Kim, 2014).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rksey와 O'Malley(2005)가 제시한 Scoping 문헌 고찰방법⁵을 따른다. Scoping 문헌 고찰방법은 비교적 단 시간 내 기존의 연구 자료들의 연구 동향 및 주제, 핵심 개념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며, 5단계에 걸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 분석 후 제시되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 방법이다(Arksey & O'Malley, 2005; Yu, 2020). 이를 위해 Arksey와 O'Malley(2005)는 다음의 5단계를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연구 질문 도출(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2) 관련 연구 확인(Identifying relevant studies), 3) 문헌 선정(study selection), 4) 연구자료 기록(charting the data), 5) 결과 집계, 요약 및 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the results)(p. 22).

Scoping 문헌 고찰방법에서의 1 단계는 종합 논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로 연구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 및 참고문헌들의 양과 일반성을 파악한 후에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연구 질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rksey & O'Malley, 2005). 2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보는 단계로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검색부터 기존연구의 참고문헌 목록을 살펴보고, 관련 지면 학술지들을 찾아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관련 연구들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과정을 통해 참고문헌 및 선행 연구들의 목록을 선정한 이후에는 실제로 본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대상이 되는 문헌을 선정하는 과정이 후속된다.

이에 따라 3 단계에서는 연구 질문과 관련된 논문들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구체적인 기준(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을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며(Yu, 2020).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을 상세히 읽으며 각 논문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Arksey & O'Malley, 2005). 이후 4 단계는 “Charting”이 핵심으로 주요 이슈 및 주제, 기준에 따라 분석 자료를 분류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합성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논문들을 읽어 나가며 엑셀(Excel)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논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5 단계는 1~4 단계에 걸쳐 선정 및 분류된 논문들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보고하는 단계이다.

3.1. 연구 문제

본고는 전술한 Scoping 문헌 고찰방식의 5단계 과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된 영어교육 분야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⁵ Scoping 문헌 고찰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명칭이 scoping studies, scoping review, scoping literature reviews 등 다소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Tricco 외(2016)에 따라 현재까지 약 73%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scoping review라는 용어를 선택하며, 이를 반영하여 국문에서도 주제범위 문헌고찰보다는 scoping 문헌고찰 방법이라는 용어와 Yu(2020)의 연구에서 번역된 각 단계별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1)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 국내 영어교육 연구는 지난 20 여 년간 시기 및 대상별 기준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 2)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 국내 영어교육 연구는 연구방법 및 주제별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3.2. 분석 대상 및 검색 방법

본 연구에서는 Scoping 문헌분석의 2단계에 해당하는 관련 연구 확인 과정을 위해, 연구출판물의 시기를 2000년부터 2022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2000년 이전에는 북한이탈 주민, 즉 탈북민들의 남한 내 영어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기 이전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부의 통계기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 입국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부터를 분석 시기로 지정하였다. 국내 북한이탈 주민들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Web of Science, Google Scholar, 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 ‘새터민’, ‘탈북민’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영어’ 및 ‘영어교육’을 세부 검색어로 지정 후 검색하였다. 또한, 영문 논문 검색으로는 ‘North Korean’, ‘North Korean defectors’, ‘English’, 및 ‘English education’을 활용하였다.

발견된 논문 외에 누락된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전·후비교(forward & backward) 방식을 활용하였고, 전술한 웹사이트 외에도 교보 스칼라, DBPIA, 교내 학술정보원 등을 통하여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체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주제어를 설정하였을 때 관련 제목으로 발견된 논문은 모두 52편이었다. 이후 Scoping 문헌고찰 방법의 3단계인 최종 분석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Arksey & O'Malley, 2005), 논문의 연구 내용을 재분석하면서 국외 북한이탈 주민의 영어교육 경험 및 자문화기록지 등 본고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 주민의 영어교육 수혜와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논문 4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 48편의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3. 분석 기준

Scoping 문헌고찰 방법의 4단계인 연구자료 기입을 위해, 본 절에서는 전술된 바와 같이 Scoping 문헌 고찰 방법의 1-3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자료들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록(charting) 및 분류(sorting)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재분류되었다: 1) 발행 시기, 2) 분석 대상, 3) 연구 방법, 4) 연구 주제(표 1 참고).

TABLE 1

The Criteria of the Research Analysis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English Education

Criteria	Main Contents for Classification
Year of Publication	From 2000 to 2022
Subjects	North Korean defectors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Survey
	Qualitative Interview, case study, observational study, action research, and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ixed Survey and interview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and action research
Research Themes	Learner Factors Learners' experience, adaptation on learning environment, and factor analysis
	Educational Contexts and Teach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s,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English education contexts, and policy analysis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물의 발행 시기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에 해당되며, 분석대상은 크게 학교현장에서 영어교육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북한이탈 학생들과 북한이탈 일반인들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어교육 연구들을 1차적으로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개괄적으로 구분한 후, 각 논문의 연구방법을 각각 조사연구, 사례연구⁶, 관찰연구, 실험연구, 실행연구 및 개발연구로 세분화하였다. 양적연구의 세부 연구유형으로는 설문연구(survey research)만 발견되었으며, 질적연구는 면담연구(interview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및 설계/개발연구(design/development research)로 분류하였다. 각 세부연구의 특징 및 혼합연구 관련 분류 내용은 본 연구결과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 연구에서 발견된 연구주제 내용들은 1) 학습자 대상 연구와 2) 교수법 및 교육현장 연구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및 분석 역시 본 연구 결과에서 다루도록 한다.

4.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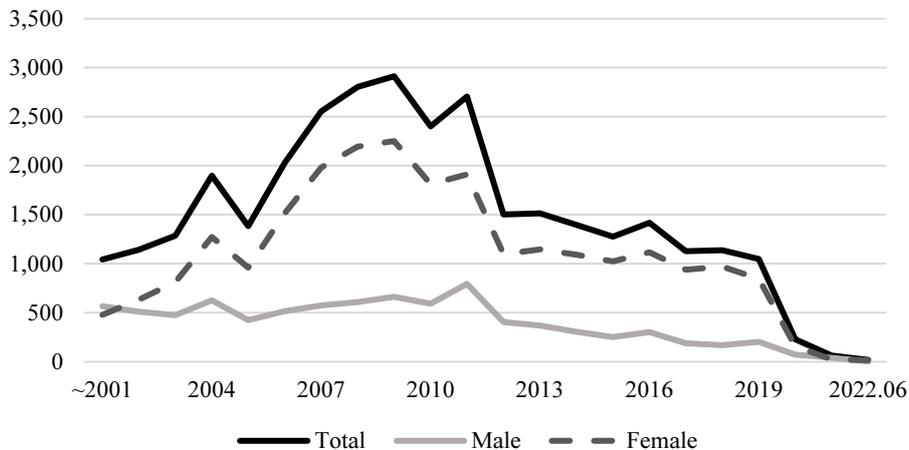
4.1. 시기별 분석

전술하였듯, 본고는 2000년 이후 북한이탈 주민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은 Ministry of Unification(2022a) 자료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⁶ 질적연구의 특성상 생애사연구, 현상학연구, 문화기술지 및 사례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서 참여관찰과 더불어 면담법이 사용된다는 특성을 바탕으로(Jun, 2017), 본 논문에서는 질적연구에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사례연구, 문화기술지와 같이 연구방법을 기술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 외 면담법을 활용한 모든 질적연구는 객관적 구분을 위해 면담연구로 분류하였다.

의 입국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통일부는 남녀 성비에 따라 입국자 수를 밝히고 있다. 먼저, 전체적인 입국자 수는 2011년까지는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인원이 2천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천 명 대로 감소된 후 유지되었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 발표시점까지는 백 명대, 십 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1 참고). Yeon(2021)과 BBC News Korea(2020)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경로 중 하나인 중국 국경의 감시 강화와 탈북 적발 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이유로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도 탈북민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자로서 어머니가 함께 탈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용이한 탈북을 위해 먼저 기혼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중국 등의 제3국에서 현지인과 위장 결혼을 한 후 북한에 남아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었기 때문이다(Rhee, Ku, & Han, 2011). 본고의 대상별 분류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논문 2편도 북한이탈 어머니의 경우였다.

FIGURE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rance in Korea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자 수가 201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그림 1참조) 북한의 영어교육을 분석한 논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북한이탈 학생 및 일반인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학술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인원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영어교육을 다룬 논문의 발행 시기를 총 3기로 나누어, 1기(2000-2011) 4편, 2기(2012-2019) 37편, 3기(2020-2022) 7편의 논문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1기에서 확인되듯, 분석대상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로 발행 시기를 한정하였으나, 북한이탈 주민의 영어교육을 다룬 논문은 2005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TABLE 2
Annual Number of Publication

Phase	Phase 1 (2000~2011)				Phase 2 (2012~2019)				Phase 3 (2020~2022)				Total						
Year of Publication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48
Number of Papers	1	0	1	0	2	0	0	3	3	5	3	3	11	2	7	4	2	1	
Total	4				37				7										
Percentage (%)	8.3				77.1				14.6				100						

4.2. 대상별 분석

48편의 분석 대상논문은 각각 북한이탈 주민 중 어떠한 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구를 하였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자들의 영어교육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들을 영어교육의 수혜자 집단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한국인 교사를 연구한 논문(예: Huh, 2019)에서는 면담 대상자가 한국인 교사였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초·중·고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돕기 위한 논문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으나, 학교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에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학생과 일반인으로 대분류하였고, 학생의 경우 북한이탈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분하였다. 대안학교는 학교의 명칭에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학교만을 선정하였으며,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습자의 연령이 다양하여 20세 이상 성인도 포함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남한의 일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의미한다. 대학교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포함되나 재학 중인 학교 명칭이 대학교라는 점에서 대학교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항목은 논문에서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루는 경우, 혹은 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학교로 선정한 경우 등 학교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인의 경우,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주민과 자녀가 영어교육을 받는 학부모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TABLE 3
Research Subjects

Classification	Total	Percentage
Students		
Alternative Schools	11	22.92%
Elementary Schools	3	6.25%
Middle Schools	3	6.25%
High Schools	1	2.08%
Universities	16	33.33%
Others	4	8.33%
Public		
Residents	8	16.67%
Parents	2	4.17%
Total	48	100%

4.2.1. 학생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학생들은 탈북으로 인한 학업중단 때문에 동일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대안학교 교사들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중시하여 능동적인 북한이탈 학생의 참여를 방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영어교사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질문하는 경우 “OK, OK, be quiet, students! Be quiet!”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영어 발화를 억제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Lee, 2014a). 또한 대안학교 담당 교사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 있는 영어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foot*, *head*와 같은 신체관련 어휘를 모를 정도로 학업부진이 심했다(Kim & Ahn, 2017a).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 학생들은 한국의 주류 사회를 향한 높은 수준의 통합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Hwang과 Jeon(2020)에 의하면, 북한이탈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였지만 탈북 가정의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영어 수업 선택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전술하였듯 북한 영어교육의 목표는 창의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체제 수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강화에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은 학문보다는 정치적 체제유지와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 초등학생들은 남한의 영어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것에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Park, 2015). 다시 말해, 북한의 영어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탈북 초등학생들은 원격화상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표현을 익히며 남한 영어학습자와의 교육격차가 완화되길 희망하였다(H.-J. Lee, 2015, 2017). 또한 2000년대 이후 발달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영어교육의 영향으로 *e-learning*을 활용하여 수준별 동영상 시청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된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Oh, 2008).

Yang(2012)에 따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본인의 신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공교육을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교

육방송 및 학습지를 활용하여 평균 주 4시간 미만으로 영어학습을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의 또래 학습자들과 학습격차를 느끼며 특히 단어와 문법 영역에서 실력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어실력 격차는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oon, 2017; Yang & Lee, 2012).

이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부설 하나들학교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영어를 포함한 주요과목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남한 고등학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적 지원 역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 고등학생 중에는 영어 기초부족 및 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영어학습을 포기한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견된다(Jung & Kim, 2015; Ministry of Unification, 2022b).

북한이탈 대학생은 남한에 도착한 시기 및 연령이 다양하며 영어문법 기초가 부족한 상태(예: 영어 한 문장을 구사하기 어려워함)로 대학에 입학한다(Choe, 2016; Choi, 2014; Jo, 2019; Kim, 2016; Park & Kim, 2014; Park, 2020). 이에 따라 대학에서 사용되는 영어교재는 이들의 영어학습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성적향상이 불가하여 영어학습 의욕과 동기가 감소하는 등 때로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Choe, 2016; Choi, 2014; Park & Kim, 2014; Shin, 2019). 이외에도 북한이탈 대학생은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고(Choe, 2016), 북한에서는 영어 원어민을 마주할 기회가 희박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영어 원어민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Shin, 2019).

4.2.2. 일반인

전술하였듯, 북한이탈 일반인은 영어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주민과 자녀의 영어교육을 관찰한 어머니로 대표되는 학부모로 분류하였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정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이 필수적이고 이는 추가적인 영어학습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수준의 공인어학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등 실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Jung, 2009; Lee, Yang, & Kwon, 2005).

Kim(2020)에 따르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이를 통해 습득한 인내심은 남한에서의 영어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탈북 기간의 학습 공백과 가족의 해체 등은 탈북 일반인들의 영어 학습 관련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유의미한 부정(-)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북한이탈 주민들은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영어 과제나 틀릴 것 같은 영어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과 남한의 영어교육은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경쟁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남한의 영어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ang & Kim, 2021; Paik, 2019; Shin & Park, 2019).

북한이탈 학부모에 관한 연구(Jo, Kim, & Lee, 2013)는 자녀 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자녀 나이 만 3세 이전부터 10분 미만의 영상 및 소리를 활용한 영어교육에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영어교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5천원인데 비해, 북한이탈 학습자 가정의 75%는 월 3만 원 이상의 가계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 et al., 2013). 또한, 남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정부 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Jo et al., 2013). 북한에서 외국어교육은 중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유아기 영어노출이 빈번한 남한 자녀들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뒤쳐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남한과는 달리 학습을 위한 체벌 및 단순암기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Jo & Kwon, 2013).

본 절에서는 영어교육의 수혜자에 따라 북한이탈 학생 및 북한이탈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 학생의 경우, 탈북 과정으로 인한 학습 공백, 남한의 영어교육 커리큘럼과는 다른 학습 격차, 기초부족에 기인하는 어려움, 영어 학습동기의 결여 등이 발견되었다. 북한이탈 일반인의 경우, 정부 지원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보부족 및 요구되는 공인어학시험 점수 미 획득 등의 제약사항으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었다.

4.3. 연구방법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영어교육 연구의 다각화를 위해, 해당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시기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연구들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나뉘며(표 4 참조), 연구방법별 발견 논문 편수 및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1) 질적연구(23편, 48.0%), 2) 혼합연구(20편, 41.6%), 3) 양적연구(5편, 10.4%).

연구방법 중 양적연구에는 설문연구만 해당되며, 질적연구에는 관찰연구, 면담연구, 사례연구, 및 실험연구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면담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영어교육 및 현장에의 실태조사, 학습자들의 경험 및 인식 조사 등을 분석한 연구는 면담연구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정 집단 및 대상에 대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로 분류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 및 관찰 장소에 가서 이들의 삶과 실제 교육 현장을 면밀히 관찰한 문화기술지 연구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단순한 효과성 검증 뿐 아니라, 실제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수업 모형 계획-실천-모니터링-발견’의 과정을 반복하며 나선형 순환구조를 띠는 연구방법의 논문은 실험연구(action research)로 분류하였다(Kang, 2016; Lewin, 1946). 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조사 및 궁극적으로 이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연구는 설계/개발연구(design/development research)로 계수하였으며, 모두 질적연구에 해당되었다.

TABLE 4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Year of Publication

Phase	Phase 1 (2000~2011)	Phase 2 (2012~2019)	Phase 3 (2020~2022)	Total(%)
Quantitative Methods	0	3(6.3%)	2(4.1%)	5(10.4%)
Qualitative Methods	0	20(41.7%)	3(6.3%)	23(48.0%)
Mixed Methods	4(8.3%)	14(29.2%)	2(4.1%)	20(41.6%)
Total(%)	4(8.3%)	37(77.2%)	7(14.5%)	48(100%)

혼합연구의 경우, 설문 및 면담연구방법이 함께 사용된 조사연구(survey and interview research)와,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학생들과의 면담과 문헌연구를 함께 활용한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가 포함되었다. 또한, 실험연구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분석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모두 혼합연구로 계수하였다.

표 4에 따르면, 전체 시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연구 유형은 정성적 접근법인 질적연구가 이에 해당하며 전체 48편의 논문 중 23편(48.0%)이 발견되었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이 갖는 연구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참여자가 요구되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연구들이 양적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병행하는 혼합연구 방식을 채택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본고에서 발견된 혼합연구는 총 48편 중 20편으로 전체 중 41.6%에 해당한다. 이는 양적연구인 5편(10.4%)의 4배에 달하는 편수로 북한이탈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양적연구 실시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2는 전술한 시기에 따라 연구방법을 재분류한 것으로, 1기에 해당하는 2000년부터 2011년도에는 총 4편의 혼합 연구가 발견되었다(Jung, 2009; Jung & Lim, 2009; Lee et al., 2005; Oh, 2008). 해당 연구들은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로 설문조사 및 면담법이 함께 사용되었으며(Jung, 2009; Oh, 2008), 설문조사 및 면담을 활용하여 남북한에서의 영어 교육을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Jung & Lim, 2009). 또한, 초창기 북한에서의 영어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북한의 교육 관련 문헌들을 연구하며 실제 이를 경험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면담을 활용한 혼합연구(Lee et al., 2005)도 함께 발견되었다.

FIGURE 2
Comparison of Research Methods by the Year of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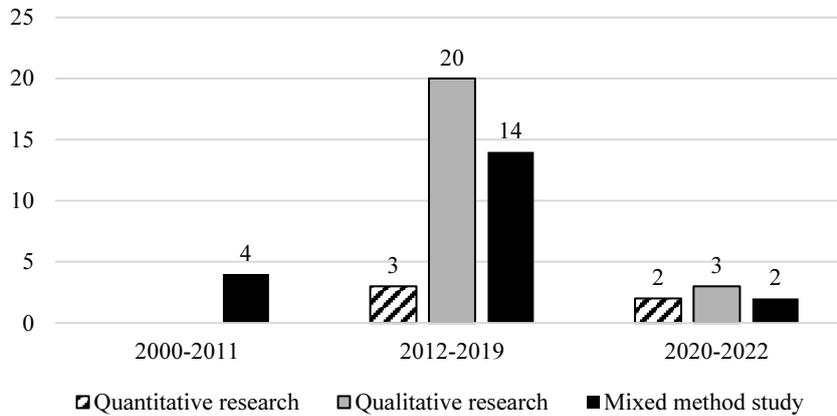


그림 2에 따르면, 2기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9년에는 1기에서 발견된 혼합연구 외에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시기에는 총 20편의 다수의 질적연구 방법론이 채택되었으며, 북한이탈 학생들과 국내 학교현장에서 북한이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법을 활용한 조사연구(Bok & Cho, 2017; Kim, 2016; H.-J. Lee, 2015; M. W. Lee, 2014a; Paik, 2019; Yang & Lee, 2012)와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실천, 지속적인 관찰 및 결과 발견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실행연구(Kim & Ahn, 2017a, 2017b)가 이에 해당한다. 질적연구 중 학습자들이 국내 영어교육 환경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면밀히 분석한 연구방법도 발견되었으며, 연구자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영어 학습을 직접 관찰하며, 학습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국내 영어교육 환경에서의 학습자들의 적응 및 부적응, 영어 학습 중에 어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Jo & Kwon, 2013; J. Y. Kim, 2014; Lee, 2014b).

2020년대 이후인 3기에는 2022년까지 7편의 연구가 발견되었다. 양적 및 질적연구로는 북한이탈 학생들의 국내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설문연구와 면담연구(Hwang & Jeon, 2020; Jang, 2021), 내러티브(narrative)형식으로 개인의 영어 학습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학습자의 주체성 및 정체성을 고찰한 질적연구(Park & Lee, 2022)가 발견되었다. 또한, 북한이탈 학생으로서 남한에서의 영어학습 경험과 관련 현상을 면밀히 분석한 사례연구(So, 2020)가 수행되었으며, 설문지와 면담 및 문헌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 상황 및 이에 따른 학습자 요인 등을 다각화한 혼합연구도 발견되었다(Jang & Kim, 2021; Park, 2020). 다시 말해, 2000년 이후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은 1기와 2기를 거치며 연구 내용 및 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균등한 비율의 연구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Detailed Research Methods

	Investigation Research	Observational Research	Action Research	Case Study	Experimental Research	Design/Development Research	Total (%)
Quantitative Research	5 (10.4%)	-	-	-	-	-	5 (10.4%)
Qualitative Research	12 (25.0%)	5 (10.4%)	2 (4.1%)	3 (6.3%)	-	1 (2.2%)	23 (48.0%)
Mixed Method Study	16 (33.1%)	-	1 (2.2%)	-	3 (6.3%)	-	20 (41.6%)
Total (%)	33 (68.5%)	5 (10.4%)	3 (6.3%)	3 (6.3%)	3 (6.3%)	1 (2.2%)	48 (100%)

아울러, 최근 20여 년간 진행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연구에 활용된 세부 연구방법 내 발견된 세부 연구 유형들을 종합하면 표 5와 같다. 1기에서 3기를 모두 통틀어 살펴 보았을 때에도 설문지와 면담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영어교육에서의 인식 및 경험을 연구하는 조사연구가 전체 48편 중 33편으로 총 68.5%에 달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실태,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에의 인식에 대한 명시적인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들의 수업 상황 및 영어 학습 내용을 관찰하며 분석한 관찰 연구는 전체 48편 중 5편(10.4%)에 해당하며(Jo & Kwon, 2013; E.-Y. Kim, 2017; J. Y. Kim, 2014; Lee, 2014b; Moon, 2017), 북한이탈 학생들의 수업 개선 혹은 적응을 돕는 영어 프로그램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는 전체 48편 중 3편(6.3%)만 이에 해당한다(Jang, 2019; Kim & Ahn, 2017a, 2017b). 아울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한 실험연구(Cheong & Cho, 2017; Choe, 2016; H.-J. Lee, 2017)와 북한이탈 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이들의 삶을 면담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사례연구(Bok & Cho, 2018; So, 2020; Yang, 2012)도 각각 3편(6.3%)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전체 연구방법을 양적연구,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로 나누어 볼 때에는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균등한 연구방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지만, 각 방법론의 세부 연구 유형은 여전히 다소 피상적인 조사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라는 점과, 북한이탈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실천적인 방향의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4.4. 주제별 분석

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 위주로 북한이탈 주민과 영어교육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표 1 참조).

TABLE 6
Research Themes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English Education

Criteria	Research Themes	Detailed Research Contents
Learner Factors	Learners' Experience and Adaptation	- Comparison of the experience in English edu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Case study on the adaptation to the learning environment - Satisfaction research with surveys and interviews
	Learner Factors	- Self-efficacy and students' motivation in English education - Transition of the learner identity - Comparison of the motivational facto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English learners
Educational Contexts and Teach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s	- Design/development of the English program for North and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 Research on the English learning strategies
	Investigation on the Educational Contexts	- Analysis of English policy and the current status of English educ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표 6과 같이 분류하여, 2000년대 이후 ‘학습자’와 ‘교수법 및 교육현장’이라는 두 가지 분류에 따라, 어떠한 세부 주제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주제별 연구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4.1. 세부 연구 내용별 발견점

표 6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행된 연구들은 연구대상에 따라 북한이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자 대상 연구와 영어교육 교수법 및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로 구분 가능하다. 우선, 학습자 대상 연구로는 교육현장에서의 학습자들의 경험 및 적응, 부정적응사례와 이에 따른 학습자의 정체성 및 동기 변화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 교수법 및 교육 현장 관련 연구에는 교육방법 개발 및 실행에서의 효과성 연구와 교육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해당된다. 이를 다시 각 주제 및 본 논문에서의 기준 시기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따르면, 본고는 전체 분석대상인 48편의 연구 내용을 ‘학습자 경험 및 (부)적응’, ‘학습자 요인’, ‘교육방법 연구’ 및 ‘교육현장 실태조사’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16편의 논문이 2가지 이상의 주제로 중복 계수되어, 총 69개의 연구 주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에서 발견되는 연구 주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경험 및 (부)적응(31번, 44.9%), 2) 학습자 요인(17번, 24.6%), 3) 교육방법 연구(11번, 16.0%), 4) 교육현장 실태 조사(10번, 14.5%).

TABLE 7

Research Trend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English Education

Phase	Phase 1 (2000~2011)	Phase 2 (2012~2019)	Phase 3 (2020~present)	Total (%)
Learner Experience and Adaptation	4 (5.8%)	22 (31.9%)	5 (7.2%)	31 (44.9%)
Learner Factors	0 (0%)	13 (18.8%)	4 (5.8%)	17 (24.6%)
English Language Teaching Methods	0 (0%)	10 (14.5%)	1 (1.5%)	11 (16.0%)
Investigation on the Educational Contexts	3 (4.3%)	6 (8.7%)	1 (1.5%)	10 (14.5%)
Total	7 (10.1%)	51 (73.9%)	11 (16.0%)	69 (100%)

전체 69개의 발견 연구 주제 중 31개의 연구주제(44.9%)는 남북한 학습현장에서의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경험 및 적응, 부적응 사례와 관련한 것으로 학위논문은 포함하여 가장 많은 편수의 연구논문들이 해당 주제를 연구하였다(Hwang & Jeon, 2020; Jang, 2021; Jang & Kim, 2021; Jo & Kwon, 2013; Jo, 2019; Jung & Lim, 2009; A. R. Lee, 2017; Lee, 2014a; Paik, 2019; Park & Kim, 2014; Park, 2020; Shin & Park, 2019; Yang & Lee, 2012). 공통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북한이탈 학생들이 남한에서의 영어수업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남한 입국 이후 학습 결손에 의한 기초 지식 부족, 생소한 영어교재 및 교수방법(Jo, 2019; A. R. Lee, 2017; Park & Kim, 2014)과 한국학생과의 수준차이와 어려운 교실 영어 수업(Jo, 2019; Yang & Lee, 2012)등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발견된 주요 주제는 학습자 요인과 관련한 것으로 총 17번(24.6%) 발견되었다. 앞서 언급한 ‘북한이탈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남한에서의 영어 학습에의 부적응 및 어려움’과 관련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어 학습에의 능숙도 뿐 아니라 적응 과정에서의 학습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정의적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발견되었다(Choe, 2016; Kim, 2020; Lee, 2018; Park, 2017; Pyo, 2017; Pyo & Kim, 2017).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영어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변화, 자기효능감 및 영어 학습 동기 요인과 같은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설문지와 면담을 활용하여 남한의 학생들과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비교한 Pyo와 Kim(2017)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영어 실력으로 인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불안감을 보였다. 또한, 북한 및 중국에서

의 과거 교육 경험으로 인하여 영어 즉 미국 문화권에 동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이탈 대학생 대상 일대일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능숙도에서의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자신감 향상, 영어 학습 동기 증진 측면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긍정적 변화가 보고되었다(Choe, 2016).

Kim(2020)의 연구는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에 주목하여,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그들의 성격 강점 특성과 이에 따른 영어학습에의 자기효능감, 동기를 살펴 보았다. 해당 학생들은 교우관계가 중요시되는 인간애 덕목이 유의미하게 높은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성격적 강점인 반면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효능감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Kim, 2020). 학습자들은 낮은 영어 능숙도에 따라 자신감과 학습 참여율이 낮았으며, 긍정적 학습자 정체성을 갖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였다(Park, 2017). 이를 통해 북한이탈 학생들에게는 반복적 영어 학습 성공경험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데에 교사의 역할이 중추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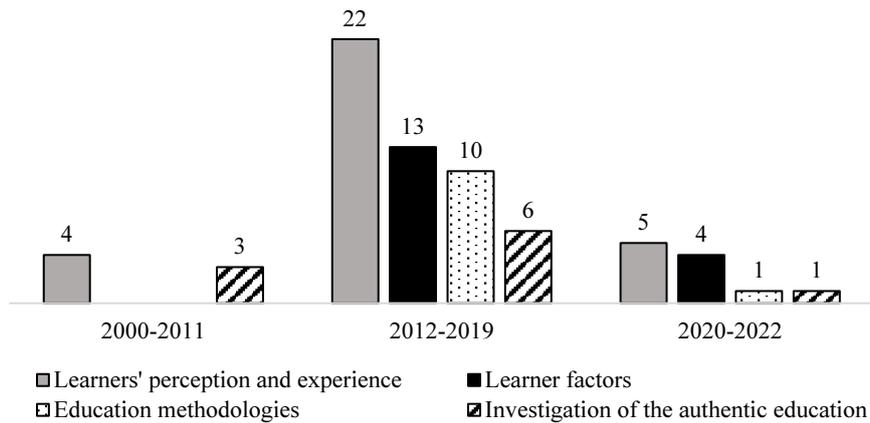
이러한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의 부적응과 영어교실 내에서의 어려움 및 긍정적 학습자 정체성의 부재 등은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 연구로 이어졌다(Huh, 2019; Jang, 2019; H.-J. Lee, 2017). 교육 방법과 관련한 주제는 11번(16.0%) 발견되었다. Kim과 Ahn(2017a)은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증진을 위해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습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여 읽기 능력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아존중감, 협동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e-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 원격화상교육이 다수의 교실환경 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영어능력 증진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견되었다(H.-J. Lee, 2017). 아울러, 이들의 모국어인 북한말 및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활용한 보다 혁신적인 영어 교수법이 연구되었으며, 연구 결과 이들이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통해 어휘, 말하기, 쓰기 등 전반적인 영어성취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Cheong & Cho, 2017).

북한이탈 주민 대상 영어교육 연구 중 가장 적은 빈도의 연구 주제는 교육현장 실태조사로 전체 발견 주제 중 10번(14.5%)의 연구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이탈 학생들 및 교육전문가들을 통한 영어 학습 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로, 북한이탈 학생들의 경우 남한에서의 영어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부재와 같은 주요 난제에 봉착해 있음이 드러났다(H.-J. Lee, 2015; M. W. Lee, 2014b).

4.4.2. 시기별 연구주제 발전 동향

본 절에서는 연구 주제의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논문 48편에서 발견된 주제들을 본 논문에서의 분석 기준 시기에 따라 재분류하였으며(그림 3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연구 내 여러 주제를 다룬 논문은 중복계수 되었다. 2000년대부터 2011년에 해당하는 1기에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양적으로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Hyun, 2014; Pyo & Kim, 2017). 1기(2000-2011)에는 북한이탈 학습자와 관련된 영어교육 연구 주제가 총 7번만 수행되었으며, 각 논문의 주제별 특징 또한,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와 교육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로 비교적 제한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FIGURE 3
Research Subjects Based on Each Phase



이후 2기(2012-2019)에는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 뿐 아니라 교육현장 실태 및 교육 방법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총 51번 발견되었으며,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가 시행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연구 주제의 확장성이며 기존의 교육현장 실태조사 및 남한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교실 내 적응 및 영어 능숙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모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자 정체성, 동기유형, 언어 자신감, 영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 제2언어 문화권 동화에 대한 두려움 등 학습자 개인의 세부적 학습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가 시행되었다(Choi, 2014; Jo et al., 2013; Lee et al., 2005; Oh, 2008). 다시 말해, 1기는 비교적 다수를 대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내 북한이탈 학습자들의 영어교육 인식 및 경험

을 탐구하였다면, 2기에서는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의 정체성, 동기, 정서적 측면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 이후부터 2022년에 이르는 3기에는 총 11번의 다소 적은 수의 연구주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경험 및 세부적인 학습자 요인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교수방법 및 교육현장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며 1기 대비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종합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국내 북한이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연구는 시기를 거듭하며 연구 주제 및 내용의 범위가 보다 심층적이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시대, 대상, 연구방법 및 주제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년간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북한에서의 영어교육 경험 및 남한에서의 영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 주민은 정치이념과 사회적 배경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남한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며(Cho et al., 2015), 이로 인해 이들은 남한 영어교육 환경 적응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탈북 과정에서 학습의 비연속성,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영어교육 기회 부족, 남한의 또래 학습자와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Cho & Kim, 2021; Choi, 2018; Kang, 2018). 이에 따라 다문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및 정부의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나, 정보획득의 미흡과 공인어학점수의 기준충족 미달 등의 이유로 영어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09; Lee et al., 2005).

남북한의 영어교육은 영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여 상위 계층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편입하고자 하는 도구적 동기에서 기인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김일성 통치시기에 해당되는 북한 초기 공교육에서는 미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적성국가의 언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에는 군사용어로 한정된 영어 학습에 중점을 두었으며(Cho et al., 2015; T.-Y. Kim, 2021), 이는 초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Jun & Yoo, 2019; Kang, 2010; Park & Kim, 2014; Yu et al., 2013). 이후 김정일 통치 시기에 속하는 2000년도에 영국문화원의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영국 국적의 원어민교사를 통한 영어 수업이 수반되었으나, 김정은 집권 후인 2017년 이후 지속되지 못하였다(H. Kim, 2017; T.-Y. Kim, 2021). 김정은 통치시기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공포하며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의 증가로 이전 시대에 비해의 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교육이 강조되었으나 (Hong & Kim, 2019; Lee, 2020; Lee & Kim, 2022;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6),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 현재 북한은 외국인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Ministry of Unification(2022a)의 북한이탈 주민 입국현황을 기준으로 1기

(2000년부터 2011년), 2기(2012년부터 2019년), 3기(2020년부터 2022년)로 구분하여, 해당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영어교육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를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약 1/4을 차지하는 대안학교에는 학습공백 및 결손으로 다양한 연령이 재학하였으며, 일반 학교에 재학하기에는 동일 학년 간 연령 차이로 인해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제약이 수반되었다. 남한에서는 어릴수록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 반해, 북한 초등학생들은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대평가의 영향력이 강화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 투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의 경우, 북한이탈 학생들은 기초 영문법을 모르고 입학하는 등 기초학력미달로 인해 대학영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반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일정수준의 공인어학점수를 획득하여야 수강 기회가 주어지나, 기초가 부족한 북한이탈 주민들은 이를 획득하지 못하기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전체 48편의 논문 중 질적연구방법이 23편(48.0%)으로, 양적연구방법(5편, 10.4%)보다 약 다섯 배 가량 많았으며, 이는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면담대상자 확보가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채택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자의 참여자 확보 한계로 인해 적게는 30명에서(Jang, 2021) 많게는 150명에 이르기까지(Pyo, 2017) 여전히 사회과학분야 대비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연구자의 개별 연구뿐 아니라, 추후 각 지자체 및 국가수준에서 대규모 양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살펴본 북한이탈 주민 대상 연구는 크게 학습자 대상 연구와 영어교육 교수법 및 교육현장 연구로 구분된다. 중복계수를 통해 산출된 전체 69개의 연구주제 중 학습자 대상 연구주제가 48번, 교수법 및 교육현장 관련 연구주제가 21번으로 계수되었다(표 6 참조). 특히 교수법 관련 연구주제 22번 중 11번의 주제들은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가 대다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들과 환경에서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 학습자를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다수의 북한이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적용하여(예: Jang, 2019; Kim & Ahn, 2017a),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1기에서 3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두 배 이상의 연구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추후에는 이들을 위한 학교현장에서의 교실 수업 모형 개선 연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실행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다수의 교육현장 실태조사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에(예: Hwang & Jeon, 2020; Jang & Kim, 2021; Jo, 2019; Park, 2020), 개별 일화적(anecdotal) 경험의

수집, 분석, 보고 수준을 뛰어넘는 체계적 현황 조사와 특수목적의 영어교육(ESP) 관점에서의 북한이탈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및 시행, 평가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tertiary

REFERENCES

[분석대상 논문]

- Bok, E., & Cho, E. S. (2017). North Korean defector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an English tutoring program. *English Language Teaching*, 29(4), 1-19.
- Bok, E., & Cho, Y. (2018). Case study on one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journey to learning English in South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9(2), 63-74.
- Cheong, S. H., & Cho, E. S. (2017). Teaching English using North-Korean defectors' mother-language and socio-linguistic background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7), 383-407.
- Choe, Y. (2016). The effect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utoring on the English language learning of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770-779.
- Choi, Y. H. (2014). English education contex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Issues and polici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8(4), 869-892.
- Huh, K. (2019). A study on flipped-learning based self-directed English teaching-learning plan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899-920.
- Hwang, M., & Jeon, J. (2020). A study on English learning experience of adult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grounded theory. *English Language Teaching*, 32(3), 87-115.
- Jang, E.-Y. (2019).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ovie-based multilingual program for enhancing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2(4), 275-303.

- Jang, E.-Y. (2021).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languag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English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5), 541-558.
- Jang, E.-Y., & Kim, E.-Y. (2021). English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English Today*, 37(3), 169-177.
- Jo, H. Y., Kim, M. K., & Lee, M. O. (2013). Realities and difficulties of Englis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of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5), 201-228.
- Jo, H. Y., & Kwon, J.-Y. (2013). An explor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mothers' early school experience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67-96.
- Jo, M. (2019). A study on a percep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English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37(1), 223-256.
- Jung, C. K., & Kim, S. (2015). A study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in South Korean high schools.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32, 65-88.
- Jung, S. (2009). *A study on the English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Jung, S., & Lim, H.-W. (2009).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s of learning English in South Korea.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7(3), 85-111.
- Kim, E.-Y. (2017). *Mediating globalization: An ethnography of the "English problem" through North Koreans' English learning with South Korean evangelic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Ontario, Canada.
- Kim, H. (2020).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with their English self-efficacy and learning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S., & Ahn, S.-H. (2017a). An action research on a multicultural English learning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Focused on English reading competencies, self-esteem, and learning skill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4), 865-900.
- Kim, H.-S., & Ahn, S.-H. (2017b). A secondary-level English language program for fostering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intercultural competencies: An action researc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2), 401-428.
- Kim, J. Y. (2014). *North Korean students' reflections on their English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M (2016). A North Korean defector's journey through the identity-transformation proces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15(1), 3-16.

- Kwon, H. (2017). *A study on the maladjustment factors experienced by North Korea refugees attempting to learn Englis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Lee, A. R. (2017). The English languag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3(1), 101-127.
- Lee, B., Yang, H.-K., & Kwon, O.-H. (2005). The current state of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4), 267-297.
- Lee, H.-J. (2015). Improvement of English learning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in South Korea: English educational contexts and issues. *Modern English Education*, 16(3), 231-250.
- Lee, H.-J. (2017). English language learning for North Korean youth students supported by ICT-based multimodal videoconferenc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2), 563-585.
- Lee, M. W. (2014a). Perceptions regarding English education: Between dislocated North Korean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their English teachers. *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114, 323-344.
- Lee, M. W. (2014b). A participatory EFL curriculum for the marginalized: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in South Korea. *System*, 47, 1-11.
- Lee, Y. (2018). *Affective domains of English learning for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youths: A comparative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Moon, H. (2017). *An ethnographic study on English learning of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Oh, S. (2008). *A study on English education for North Korean students in the South Korean alternative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 Paik, K. (2019). Attitudes of North Korean people towards English: Present and future. *Asia EFL Journal*, 21(2), 9-31.
- Park, E., & Kim, O. (2014). North Korean defectors' struggle with English in the South Korean university system: A case study of a private university in Seoul.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3), 335-359.
- Park, E. S. (2020). Refugee-background students' experience with college English requirements: The case of North Korean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19(2), 111-124.
- Park, E. S., & Lee, H. (2022). "I want to keep my North Korean accent": Agency and identity in a North Korean defector's transnational experience of learning English. *TESOL Quarterly*, 56(1), 19-40.
- Park, J.-K. (2015). *A study on English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students in South Korea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Park, S. (2017). *Transformation of English learner identity: A narrative inquir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yo, N.-H. (2017).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betwee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and South Korean youths during the English camp*.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Pyo, N.-H., & Kim, H.-D. (2017). Analysi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 115-142.
- Shin, M.-J. (2019).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English learning and college English class' satisfaction of North Korea refuge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hin, Y. K., & Park, E. S. (2019). Spatial trajectories of North Korean L2 English learners: Transformed attitudes towards English across spaces.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9(4), 328-341.
- So, H. (2020). *A qualitative case study on English learning in alternative schools for North Kore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Yang, Y. M. (2012). *A case study on the English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Yang, Y. M., & Lee, S. (2012). A study on English educ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a South Korean public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19, 59-78.

[본문 참고문헌]

- Arksey, H., & O'Malley, L.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 BBC News Korea. (2020). North Korea: Kim Jong Un jipgwon ihu talbugi jeomjeom himdeureojineun iyu (North Korea: Why it's getting harder to escape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BBC NEWS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5495998>
- Cho, J.-A., Lee, K.-D., Kang, H., & Jung, C. K. (2015). *Education policy,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in the Kim Jong-un Er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ho, S. H., & Kim, J.-K. (2021). A study on precedence tasks for the saf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n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20(5), 383-407.
- Choi, E. (2018). Bukanitaljuminui jeongchakjiwon jedo byeoncheongwa sahoejeogeunggyoyugui gaeseon banghyang (Changes i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Korea Society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Law Studies*, 18, 387-425.
- Hong, J. S., & Kim, J.-R. (2019). A diachronic analysis of the English textbooks along the North Korean ruling author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599-619.
- Hyun, I. (2014). *Bukanitaljuminui jeongchijeok jaesahoehwa yeongu (A study on the political resocia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oo, Y., & Uhm, C. J. (2020). Analysis of North Korea's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2013 revised curriculum.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3), 39-54.
- Jun, S. H., & Yoo, H. J. (2019). North Korean defected university student's difficulties of adjusting to higher education and the needs of supporting polic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1257-1279.
- Jun, Y. (2017). Comparative review study between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5(1), 147-168.
- Jung, C. K. (2018). The development of a Common English National Curriculum for Koreans (CENCK).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2(4), 47-82.
- Kang, B. (2018). A study on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right to education. *Comparative Law Review*, 29, 25-46.
- Kang, C. (2010). North Korean refugee supporting policy based on barrier facto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2(1), 261-290.

- Kang, G., Han, M., Kim, H., Lee, H., & Kim, Y. (2014). *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urvey and design study*. Jincheon, Chungcheongbuk-do: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ang, H. D. (2016). Action research trends analysis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English Teaching*, 71(2), 111-139.
- Kim, E. (2021). Seororeul hyanghae han georeumssik: Bukanitaljumineun eonje jeongchakaneunga (One step toward each other: When do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down). *Christian Thought*, 754, 220-231.
- Kim, H. (2017). Yeonggungmunhwawon, bukan nae yeongeogyoyung jungdan (UK cultural center suspends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VOA. Retrieved from <https://www.voakorea.com/a/4017764.html>
- Kim, J.-R. (2021). An analysis of situations and communicative functions in the dialogues of North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20(2), 75-94.
- Kim, K.-S. (2014). Kimilsungism-Kimjongilism in Kim Jong-un era: The abstraction of juche and songun ideologies. *Korea and World Policies*, 30(1), 65-92.
- Kim, N. (1995).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Bukanui gyoyukjedo: Bukanui yeongeogyoyung siltae). *North Korea*, 6, 178-187.
- Kim, S. (2018). Mueosi talbungmineul tallamhage mandeuneunga (What makes North Korean refugees 'departure'). Nodongjayeondae. Retrieved from <https://wspaper.org/article/19893>
- Kim, T.-Y. (2021). *Historical development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research*. Singapore: Springer.
- Korea Hana Foundation. (2021). *Bukanitaljumin siltaejosa (Survey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Kwon, S. D. (2018).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of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r social integration. *Korean Unification Studies*, 22(1), 71-108.
- Lee, K.-A. (2020). Analysis of changes in English textbooks in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10(3), 83-110.
- Lee, Y., & Kim, T.-Y. (2022). The paradigm shift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North Korea: A corpus-assisted analysi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279-299.
- Lewin, K. (1946). Action research and minority problems. *Journal of Social Issues*, 2(4), 34-46.
- Ministry of Unification. (2022a). *Bukanitaljumin ipguginwon hyeonhwang (Status of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the country)*. Ministry of Un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Ministry of Unification. (2022b). *2023nyeon hanadulhakgyo donggyehangnyeokbochungban mojip gonggomun (2023 Hana-Dul school's announcement for the recruitment of winter education supplementary classes)*. Ministry of Un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01&mode=view&cntId=55360&category=&pageIdx=
- Na, G. H. (2019). A study on directions of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Unification Strategy*, 19(2), 119-147.
-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6).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70&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odr=news&eqDiv=%EC%9E%90>
-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22). *2022 Understanding North Korea*. Seoul: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 Oh, S., & Kim, T.-Y. (2020). A comparison of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between pre- and post-2013 Revised Curriculum in North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21(1), 43-55.
- Oh, T.-B., & Lee, H. J. (2022). Finding ways to support education by analyzing the education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Wellness*, 17(2), 121-127.
- Park, Y., Kim, J., Ko, K., Park, K., & Chung, K. (2000). A comparative study on English textbooks of secondary schools in South and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163-194.
- Rhee, Y. S., Ku, H. W., & Han, I. (2011). Systematic reviews of North Korean refugees: Women's distinguishable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56, 147-193.
- Shin, J., Kim, K., Park, S., Kim, Y., Lee, M., Seo, Y., ... & Choi, S. (2012). *Characteristics analysis on achievement by subjec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based on N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Achievement results*. Jincheon, Chungcheongbuk-do: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Tricco, A. C., Lillie, E., Zarin, W., O'Brien, K., Colquhoun, H., Kastner, M., ... & Straus, S. E. (2016). A scoping review o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scoping review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16(15), 1-10.
- Yang, S. M. (2022). The stud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the welf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 act. *Social Welfare and Law Journal*, 13(1), 163-196.
- Yeon, K. (2021). Kim Jong Un talbukja tongje ganghwa wolgyeongjae chongsalmyeongnyeong (Kim Jong-un strengthens control of North Korean

- defectors...orders to shoot people who cross the border). Ray P. Retrieved from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1000004&no=24587>
- Yoo, H.-Y., & Kim, J.-R. (2018). A comparison of structural organization of English textbooks between pre and post North Korean 2013 Curriculum Revi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7), 412-422.
- Yu, J. A. (202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university students defected from North Korea.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9, 253-280.
- Yu, S., Bae, H., Jo, M. S., Kim, K., & Choi, Y. (2013). *Talbukdaehaksaeng jungdotallang wonin min daean (Causes and alternatives for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Seoul: Neulpumpeulleoseu.